

I. 주간 경제 동향

1. 경제 개관

□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

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. 그러나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므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

- (내용)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
 - 97년 12월 21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Baa2에서 Ba1으로 하향 조정한지 1년 1개월만인 2월 12일 Baa3의 신용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
 - 지난 1월 Fitch IBCA와 S&P에 이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적격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음
 -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과 함께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하였음
- (요인) 외환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의 진행이 결정적인 기여
 - 무디스는 크게 향상된 외환 사정,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와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, 외환 자유화 진전, 금융 및 기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등을 언급하였음
- (유의점) 최근 한국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,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
 - 한국경제가 구조조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길고 힘들 것이며 대외 불안 요인에 의한 충격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음. 또 경제적 성과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유연성과 정치적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
 - 또한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지만 고실업과 실질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, 엔화 환율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상황이 한국 수출품의 수요와 경쟁력, 한국 경제의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음

- (영향) 상향 조정은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
- 이 정도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은 예상되었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의 유입 등과 같은 효과는 이미 1~2개월전부터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음
- 다만, Baa1~Baa3 등급은 '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투기적 요소가 있는 등급'을 의미하므로 아직까지 완전한 신뢰를 회복한 것은 아님

<무디스의 한국 신용 등급 변화 추이>

등급		외화 표시 채권	원화 표시 국채
투자적격범위	Aaa ↓ Aa3		
	A1	① 97년 11월 27일 이전	
	A2		
	A3	② 97년 11월 28일	
	Baa1		① 98년 12월 4일(최초 부여)
	Baa2	③ 97년 12월 11일	
투자부적격범위	Baa3	⑤ 99년 2월 12일	
	Ba1	④ 97년 12월 21일	
	Ba2		
	Ba3		
	B1 ↓ C		

- 한편 국내은행들의 신용등급도 Caa1 등급에서 상향 조정되었는데, 하나·주택·국민·산업·신한은행은 Ba2로, 대구·기업·한미·부산은행은 Ba3, 조흥·한빛·외환·제일·서울은행은 B1로 조정

□ 1월 중 직접금융 조달 실적

1월 중 직접금융 조달은 전년동기대비 32.7% 증가.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전체의 94.1%를 차지

- (동향) 1월 중 직접금융 조달 실적은 4.7조 원 기록(전년동기대비 32.7% 증가)
- 기업 공개 : 1건 0.5억 원으로 전년동기(2건, 996억 원)에 비해 99.9% 감소
- 유상 증자 : 2,728억 원(전년 같은 기간의 유상증자 실적은 없음)을 기록했는데, 업종별로는 금융기관(전체의 83.1%), 증자 형태로는 주주배정 방식(98.4%)의 유상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함

-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은 4조 3,835억 원(전년동기대비 28.6% 증가)으로 전체 직접금융 조달 실적의 94.1%를 차지. 대기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은 4조 2,030억 원(전년동기대비 24.0% 증가)으로 전체의 95.9% 차지. 그러나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기(3조 1,700억 원, 전체의 93%)에 비해 크게 줄어든 1조 610억 원(전체의 24.2% 차지)에 불과. 보증 유무별로 보면 무보증사채에 의한 발행이 4조 2,3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,683% 증가(전체의 96.7%를 차지함)

< 99년 1월중 직접금융 조달 실적 >

(단위: 억 원, %)

구 분	98년 1월	구성비	99년 1월	구성비	전년동기대비
기업공개	996(2건)	-	0.5(1건)	-	- 99.9
유상증자	-	-	2,728(4건)	100.0	-
규모별					
대기업	-	-	2,684(3건)	98.4	-
중소기업	-	-	44(1건)	1.6	-
업종별					
제조업	-	-	75(2건)	2.7	-
금융업	-	-	2,267(1건)	83.1	-
기 타	-	-	386(1건)	14.2	-
형태별					
주주 배정	-	-	2,684(3건)	98.4	-
주주우선공모	-	-	44(1건)	1.6	-
제3자 배정	-	-	-	-	-
회사채	34,095(53건)	100.0	43,835(120건)	100.0	28.6
규모별					
대기업	33,890(50건)	99.4	42,030(103건)	95.9	24.0
중소기업	205(3건)	0.6	1,805(17건)	4.1	780.5
보증유무별					
보증	32,975(50건)	96.7	1,465(18건)	3.3	- 95.6
무보증	1,120(3건)	3.3	42,370(102건)	96.7	3,683.0

주 : 규모별 구분은 금융업도 포함된 것임

자료: 금융감독원

□ 금융시장 동향

원/달러 환율은 공급우위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접 개입으로 1,175원선에서 소폭 등락. 한은 총재의 하반기 중 금리 상승 가능성 시사 발언의 여파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은 급등세. 주가는 프로그램 매도 지속으로 한때 510선이 붕괴되었지만, 선물 고평가 반전, 세계 증시 동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반전

- (외환시장) 원/달러 환율은 1,170~80원대의 박스권 유지

- 설 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의 네고 물량 유입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
-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등을 통한 당국의 간접 개입으로 하락이 제약되어 1,170원대에서 소폭의 등락의 거듭함

-
- '1,170원 초반대 매입, 후반대 매도' 장세가 지속되면서 1월말 이후 1,170~80원대의 박스권 유지
 - 원/달러 환율은 2월 13일 현재 1,175.6원을 기록

- (자금시장) 급등세

- 한은의 탄력적인 공개시장 조작과 RP 금리 인하, 설연휴를 앞둔 금융기관의 콜 자금 이동 자제 등에 따라 콜금리와 같은 단기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함
- 그러나 회사채수익률과 같은 장기금리는 오히려 급등세로 반전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
- 금리가 단기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한은 총재의 하반기 중 금리 상승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매입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어 회사채 수익률의 급등이 초래됨
- 투신사의 단기공사채 수익증권에 장기채권의 편입을 제한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도 금리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였음
- 2월 9일 8.89%까지 급등했던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은, 금감원이 투신사 단기 펀드에 대한 장기채권 편입 제한 조치의 시행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 2월 13일 현재 8.79%를 기록

- (주식시장) 주가 소폭 상승

- 주식시장의 선물 저평가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증가와 향후 장세에 대한 불안 심리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여, 2월 10일 한때 종합주가지수 510선이 붕괴되었음. 그간 5조 원 이상을 유지하던 고객예탁금이 4조 원대로 감소하는 등 투자 심리도 극도로 위축되었음
- 그러나 브라질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미국 다우존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홍콩,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가들도 동반 상승함으로써 급등세로 반전됨. 또 선물의 고평가 반전과 설 연휴 이후에 장세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세를 부추김
- 2월 12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51.77 포인트를 기록

(채 창 균 ckche@hri.co.kr ☎724-4031)